

출산·양육 지원 확대...가족친화 직장문화 만든다

전남개발공사, 올해 출산 예정 직원 12명...전년보다 3배 증가 유연근무 세분화·가족돌봄 휴가 도입...난임·출산 지원 강화

전남개발공사가 저출생 대응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출산·양육 지원 제도를 확대하며 가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에 나섰다.

전남개발공사(사장 장충모)는 임신·출산 직원에 대한 복지제도 정비와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해 직원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직장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저출생 문제가 국가적 과제로 부각되는 가운데 전남도는 2025년 전국 시도 가운데 합계출산율 1위(1.04명)를 기록하며 저출생 대응 정책 성과를 보이고 있다.

전남개발공사 역시 이러한 정책 기조에 발맞춰 가족친화적 복지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공공기관 차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이 같은 제도 개선 노력에 힘입어 올해 공사 내 출산 예정 직원은 1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보다 3배 늘어난 규모로, 공사 내부에서도 이례적인 증가로 평가되고 있다.

공사는 그동안 추진해 온 가족친화 복지제도 개선과 근무환경 조성이 직원 만족도를 높이며 출산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를 만드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직 문화 역시 변화하고 있다. 직원들의 임신과 출산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동료들이 함께 축하하고 격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공사 내부의 가족친화 문화가 자연스럽게 확산되고 있다는 평가다.

전남개발공사는 임신·육아기 직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유연근무제 선택 단위를 기존 1시간에서 30분 단위로 세분화했다. 이를 통해 육아와 출퇴근 시간 조정이 보다 수월해지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했다. 또 가족수당을 인상하고 가족돌봄 휴가 제도를 신설하는 등 가족돌봄 지원도 강화했다.

특히 난임치료 휴가 사용 시 비밀 보장과 불리한 처우 금지 등을 명문화해 난임 치료와 출산 준비 과정에서 직원들이 겪을 수 있는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전남개발공사가 저출생 대응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출산·양육 지원 제도를 확대하며 가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에 나섰다. 사진은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이 출산 예정 직원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출산축하금을 상향하고 관련 예산을 별도로 반영해 안정적인 지급 체계를 구축했으며, 임신 직원에게 축하 선물과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정서적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전남개발공사는 앞으로도 임신과 출산, 육아 단계별로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직원들이 경력 단절에 대한 부담 없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은 "정부의 저출생 대응 정책에 적극 부응해 임직원들이 안심하고 출산과 양육을 준비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겠다"며 "공공기관으로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전남을 만드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목포상의, 주한남아공 대사관과 경제·산업 등 교류 협력

양국 경제·산업 협력 강화 업무협약 체결

목포상공회의소가 주한남아공 상공회의소·대사관과 간담회를 열고 양국 기업 간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10일 목포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최근 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주한 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관 일행이 방문해 양국 경제·산업 협력 강화를 위한 간담회와 양국 상공회의소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현택 목포상의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신디사와 유무쿠 주한 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 티머시 디킨스 주한 남아프리카공화국 상의 회장, 칸체 세카타와 주한 남아프리카공화국 대사관 1등 서기관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전남 서남권 지역의 경제·산업 현황을 공유하고 양국 기업 간 무역·투자 확대, 산업 협력 가능 분야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나눴다. 특히 해양·물류, 에너지, 제조업, 친환경 산업 등 지역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양국 기업 간 실질적인 협력 모델과 기업 교류 확대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목포상의와 주한 남아프리카공화국 상공회의소 간 전략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됐다.

이들은 간담회 이후 HD현대상선와 ㈜대창식품 방문 일정을 통해 조산·해양산업 및 김 제조업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향후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과 정보 교류, 공동 사업 발굴 등 실질적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목포상공회의소는 최근 상공회의소에서 주한 남아프리카공화국 상공회의소 및 대사관과 양국 경제·산업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

정현택 목포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번 방문이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지역기업 간 교류와 협력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양국 기업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가교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목포=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장흥군수협, 인재육성장학회에 1000만원 전담

2019년부터 지역 상생·사회공헌 등 활동

장흥군수산업협동조합이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장흥군인재육성장학회에 장학금 1000만원을 기부했다.



이번 장학금 전달식은 최근 장흥군수협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4기 대의원회 행사 중 진행됐으며, 김성장흥군수, 이상배 장흥군수협 조합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장흥군수협은 지역 어업인의 권익 향상과 수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한 사회공헌 활동에도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특히 2019년부터 현재까지 총 6000만 원의 장학금을 기부하며 지역 인재 양성과 교육 발전에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고 있다.

이상배 조합장은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 갈 학생들이 꿈을 키워나가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장

학금 기부에 참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나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성 장흥군수는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보내주시는 장흥군수협에 감사하다"며 "장학금이 지역 학생들의 학업과 꿈을 지원하는 데 의미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충=정명수 기자 jms050311@



최근 열린 장성호 수변길마켓 재개장식에 참석한 김한중 군수와 농가 및 업체 등 관계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제공=장성군

장성군 '장성호 수변길마켓' 재개장

농가 등 17곳 참여...농특산물 거래 판매

장성군은 '장성호 수변길마켓'을 재개장했다.

장성읍 용강리 163번지(장성호 주차장)에 위치한 '수변길마켓'은 총 17개 농가·업체가 참여하는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장이다.

이곳에서는 과일 등 신선한 지역 먹거리와 편백나무 제품 등 특산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매주 토요일, 공휴일에만 운영하며 시간은 오전 9

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장성호 수변길을 찾은 방문객이라면 입장료 3000원을 내고 돌려받은 장성사랑상품권을 물품 구입에 사용할 수도 있다.

김한중 군수는 "참여 농가 및 업체에는 안정적인 판매 기회를, 방문객에게는 믿고 살 수 있는 상품을 제공하는 '상생의 장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이형범 기자 lhb6699@gwangnam.co.kr



광주시세마을회는 최근 하나은행·하나카드와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광주시세마을회, 하나은행·카드와 상생발전 맞손

민간 안전망 구축 위한 금융지원·맞춤형 상담 추진

광주시세마을회는 최근 하나은행·하나카드와 상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류재선 광주시세마을회장과 사회원단체장, 구회장을 비롯해 하나은행 호남영업그룹 우승구 부행장, 하나카드 김국재 광주센터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 상호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공헌활동과 금융 지원 확대에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시세마을회지도는 하나은행 계좌 개설 및 하나카드 발급으로 금융지원을 받아 민간 안전망 구축 사업에 활용하고, 하나은행에서는 세마을회지도자들을 위한 다양한 양질의 금융서비스 및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류재선 광주시세마을회장은 "K-컬처의 원조인 세마을운동의 뜻을 살려 광주시형 해외협력사업과 지역사회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는데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며 "상호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뜻깊고 활력있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세마을회는 올해부터 직장협의회 주관으로 베트남 난민신청 지원사업(희망드림 집 2채) 지원추진과 마을 속원 사업에 활용하고, 하나은행에서는 세마을회지도자들을 위한 다양한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희망드림 집 2채) 지원추진과 마을 속원 사업에 활용하고, 하나은행에서는 세마을회지도자들을 위한 다양한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희망드림 집 2채) 지원추진과 마을 속원 사업에 활용하고, 하나은행에서는 세마을회지도자들을 위한 다양한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희망드림 집 2채) 지원추진과 마을 속원 사업에 활용하고, 하나은행에서는 세마을회지도자들을 위한 다양한 양질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전남자치경찰, 아동안전지킴이 794명 배치

전남경찰청과 협력...학교 주변 범죄 예방 활동 강화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가 새 학기를 맞아 초등학교 주변 아동 안전 확보를 위해 아동안전지킴이 운영에 들어갔다.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전남경찰청과 협력해 지난 9일부터 도내 초등학교 주변에 아동안전지킴이 794명을 배치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동안전지킴이는 초등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아동 대상 범죄 예방과 청소년 비행 지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임시 조치 등 현장 중심의 안전 활동을 수행한다.

지킴이 인력은 퇴직 경찰관과 교사 등 전문 경력을 가진 인력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휴식기를 제외한 약 9개월 동안 초등학교 주변 아동 안전 취약지역을 정기적으로 순찰하며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지원한다.

정순관 전남도자치경찰위원장은 "아동 안전지킴이 활동은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이자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생활 치안"이라며 "아동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